

## 濟州語 ‘양지’ 語彙에 대하여

강 영 봉\*

### 1

濟州語 가운데에는 한자의音が 변하여 된 어휘가 많다. 그 몇 예로 ‘골총·구기·구늵·서답·승시·승악·식계·테물·홍세함’ 등을 들 수 있는데, 각각 ‘古塚·九九·窮凶·洗踏·凶事·凶惡·式暇·退物·婚事函’에서 비롯된 어휘들이다.

- 멧 해 벌초 안흔은 골총<sup>1)</sup> 돼주(멧 해 벌초 않으면 고총 되지).
- 그런 구기로 장사해지카(그런 셈법으로 장사할 수 있을까).
- 나이 족아도 구늵<sup>2)</sup>은 직각혀여(나이는 적어도 음흉함은 많아).
- 큰 서답은 저 알려래 강 빨라(큰 빨래는 저 아래로 가 빨아라).
- 그런 승시가 시까(그런 흥사가 있을까).
- 참말로, 승악흔 사름이여(참말로, 흉악한 사람이네).
- 식계<sup>3)</sup>칩 아이 몫썸다(제삿집 아이 사납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이나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의 ‘오래된 무덤’이나 ‘옛무덤’이란 뜻보다는 《국어대사전》(이희승)의 “실전(失傳)하였거나 절손(絶孫)하여 사초(莎草)하지 못하는 묵은 무덤”의 뜻으로 쓰인다.
- 2) 한자어 ‘窮凶’에서 유래한 어휘이기 때문에 ‘군용’이 되어야 하나, 현실음은 ‘구늵’이어서 이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 3) 식가(式暇)란 “집안에 기제사가 있을 때, 관원에게 주어지던 정식 휴가”를 말한다.

- 식게 테물<sup>4)</sup> 앓아 와수다(제사 음식 가지고 왔습니다).
- 경해도 흥세함<sup>5)</sup>은 받딘 켜당이 들러사(그래도 함은 가까운 친척이 들어야).

위 예문에서 보듯, 유래된 한자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어휘가 있는 반면, 한자음이 변하여 제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유래를 밝히기 조금 어려운 것도 있다.

## 2

‘얼굴’이나 ‘얼굴의 생김새’ 또는 ‘감정 표현이 나타난 형색’의 뜻을 지닌 제주어 ‘양지’도 한자어 ‘樣子’에서 유래한다.

- 아비 樣子를 어미드려 무러(삼강 효: 26)
- 진실로 太守 路次 處處의 슈고흐신 樣子 말로 다 못할 일이로송이다(첩해초8: 18)
- 네 樣子를 가져 오라 내 보자(박통 중: 4)

위 예문에서의 ‘樣子’는 각각 ‘모습·모양·외관’으로 해석된다. 즉 ‘아비 樣子=아버지의 모습’은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아버지의 인상착의’이고, ‘處處의 슈고흐신 樣子=곳곳의 수고한 모양(상태·모습)’을, ‘네 樣子=네 외관(外冠)’이란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는 ‘樣’을 “도국 양”(《新增類合》하: 51)이라든가 “모양 양”(《倭語類解》상: 19)이라는 데서 그 근거

4) 보통 제사 때 조상에게 올렸다 도로 내린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사에 참석한 친척들이 음복하고 그래도 남으면 이웃집에 나누어주기도 한다.  
 5) {혼사(婚事)}+{함(函)}으로 구성된 어휘로, 결혼식이 있는 아침, 신랑 쪽에서 ‘예장’과 ‘예단’을 넣은 나무 상자를 빨간 보자기에 싸 신부집으로 보내는 함(函)을 말한다. ‘흥세미녕’도 ‘혼사 때 사용하는 무명’을 말하는 것이니 {혼사}+{미녕}으로 분석된다.

를 찾을 수 있다.

한편 《蒙語類解》에는 “樣子 본보기○두립”(보: 19 服飾)이라 하여 ‘樣子’를 ‘본보기’로 대역하고 있다. 이 어휘가 ‘복식’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어 그 의미는 ‘본을 보이기 위한 물건 곧, 옷감을 잘라 옷을 만들 때 그 밑그림의 바탕이 되는 본’을 말하는 것으로 ‘원형(原型)’을 뜻한다. 《譯語類解》에서도 “樣子○견양”(하: 49)이라 하여 ‘견양’으로 해석하고 있다. ‘견양’(>겨냥)이란 ‘어떤 물건을 겨누어 정한 치수와 양식’이란 의미이고 보면 ‘양식·형식’이란 뜻이 강하여 《蒙語類解》와 거의 일치한다.

한자어 ‘樣子’는 ‘양즈’로 읽히어<sup>6)</sup> 사용되는데, 그 쓰임은 다음과 같다.

(가) ① 相인 양지라(석보상절 서)

② 廟는 양지니 祖上 양즈 겨신 짜히라(석보상절13: 53)

③ 양즈의 식석호샤미 獅子 | ㄱㅌ시며(월인석보2: 57)

④ 양지 摩耶夫人만 몬호실씨(석보상절6: 1)

⑤ 겨지브 양즈논(婦容)(선사내훈1: 14)

⑥ 부텃 양즈롤 보아라(석보상절23: 13)

⑦ 相好는 양즈 도호샤미라(월인석보2: 10)

⑧ 양즈 고틀 모로매 단정호고 엄정히 호며(容貌必端莊)(번역소학8: 16)

(나) ⑨ 그 양즈롤 보디 아니호여 널오디(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3: 79)

⑩ 흐르논 피 양즈의 ㄱ득호여(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4: 52)

⑪ 여슬 히롤 상복을 받디 아니호니 머리 찍이오 양지 ㅌ 씨이 고(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6: 18)

(다) ⑫ 悽愴은 슬허호는 양지라(월인석보 서)

6) ‘양즈’를 비롯하여 ‘양지 양즈 양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譯語類解》에서는 ‘模樣’을 ‘양즈’로 읽고 있다. 模樣○양즈(《譯語類解》상: 32 身體) 그 변화는 ‘양즈>(양지)>양지’ 과정을 거친다.

- ⑬ 게으른 양지 업스며(無情容)(번역소학10: 23)
- ⑭ 뿔뿔로 심각하며 우는 양즈 보기 슬희(고시조, 청구영언)
- ⑮ 맛당히 어버의 양즈빚치 편안호신가 못호신가 알려 호미라  
(가례언해2: 11)

(라) ⑯ 뉘손더 타 나관더 양지조차 ㅁ뜣손다(경민 중: 38)

⑰ ㄴ 양즈는 늘근 한아비 드외엿도다(顏狀老翁爲)(두시언해21: 31)

(가)항은 ‘형상·모습·용모·자태’로 해석이 가능한 예문이며, (나)항은 그냥 단순하게 ‘얼굴’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예들이다. 한편 (다)항은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반영된 ‘얼굴 모습’을, (라)항은 ‘얼굴 생김새’나 ‘얼굴 상태’를 의미한다. 그 意味域으로 본다면 (가)>(나)>(다)>(라)로 축소되고 있다.

(가)항의 ①은 ‘형상’을, ②의 예문에서는 ‘廟=양즈’이니 한자어 ‘廟’가 지니고 있는 제일의 의미 ‘형상’이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조상의 형상’을 모신 곳이 바로 ‘사당’이 된다. ④⑤에서는 ‘용모’나 ‘자태’가, ⑥⑦에서는 ‘(부처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⑦의 ‘相好’는 불교 용어로 ‘부처가 갖추고 있는 신체의 크고 작은 특징’을 말한다. ⑧에서는 ‘양즈’가 ‘꼴’과 연결되어 ‘용모’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항의 ⑨⑩⑪은 ‘얼굴’로 해석이 되며, (다)항은 ‘얼굴의 구체적인 상태’ 곧 얼굴의 감정 표현을 읽을 수 있다. 예문 ⑫는 한자어 ‘悽愴’은 ‘얼굴에 나타난 슬픈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임을, ⑬에서는 ‘게으름을 피우는 표정’을, ⑭에서는 ‘우는 얼굴’을, ⑮는 ‘얼굴빛’을 뜻한다.

(라)항 ⑯에서는 구체적인 얼굴 모습, 곧 눈·코·입 등의 생김새가 판박이인 듯 부모와 빼어나게 같다는 것이다. 예문 ⑰은 특히 주목을 끈다. ‘ㄴ’과 ‘양즈’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文面대로 한다면 ‘ㄴ>양즈’가 성립되어 ‘ㄴ’보다는 ‘양즈’가 좁은 意味域을 담당할 것이라 예견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ㄴ’은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을 그 기본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얼굴’은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기본 의미로 하고, 부차적인 의미로 “머리 앞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생김새”와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을 들고 있다. ‘얼굴’의 부차적 의미인 “머리 앞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생김새”나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은 ‘양즈’가 가지고 있는 意味域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訓蒙字會》나 《新增類合》 등에서 ‘양즈· 뇨·얼굴’의 意味域을 확연하게 구분한 데서도 확인된다.

《訓蒙字會》:

- 양즈; 姿 양즈 즈(하: 11) 態 양즈 티(하: 11)
- 뇨; 顏 뇨 안(상: 13) 面 뇨 면(상: 13) 臉 뇨 렴(상: 13) 盪 뇨 시슬 관(하: 5)
- 얼굴; 形 얼굴 형(상: 13) 狀 얼굴 장(상: 18) 型 얼굴 형(하: 7) 模 얼굴 모(하: 7) 式 얼굴 식(하: 9)

《新增類合》:

- 양즈; 姿 양즈 즈 (하: 44) 豔 艶 양즈 도홀 염(하: 54)
- 뇨; 顏 뇨 안(상: 20) 面 뇨 면(상: 20) 靨 뇨 더울 란(하: 15)
- 얼굴; 狀 얼굴 상(상: 15) 體 얼굴 테(상: 22) 形 얼굴 형(하: 1) 象 얼굴 상/고키리 상(하: 51)

대체적으로 ‘양즈’는 ‘姿 豔 艶 態 貌’로, ‘ 뇨’는 ‘顏 面 靨 臉 盪’, ‘얼굴’은 ‘形 型 體 狀 象 模 式’으로 표현, 한자어가 한 글자도 겹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sup>7)</sup> 이는 곧 ‘양즈· 뇨·얼굴’ 세 어휘의 意味域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결과다.

7) 이른바 광주본 《千字文》에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줏’이 바로 그것이다.

(석봉 《천자문》)

- 姿 양즈 즈(40)
- 貌 양즈 모(30)
- 面 뇨 면(18)
- 形 얼굴 형(10)

(광주본 《천자문》)

- 고울 즈
- 줏 모
- 뇨 면
- 줏 형

3

국어사전에서는 ‘양지’는 ‘얼굴’의 방언형으로, 제주·평안·함경(함남)에서 쓰이는 방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 《큰사전》(한글학회); 양지[이]=얼굴  
얼굴; (얼굴. 안면=顔面①. 양지)
-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양지(ㄷ樣子)[이]→얼굴. <제주, 평안, 함경>
- 《국어대사전》(이희승); 양지[방] <방> 얼굴(평안·함경)
- 《국어대사전》(금성판); 양지[방]→얼굴(평안·함경 방언)
- 《새우리말큰사전》(삼성판); 양지[방]→얼굴(평안·함경)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양지[방] ‘얼굴’의 방언(제주, 평안, 함남).

《큰사전》에서는 ‘양지’ 표제어 앞에 반달표를 표시하여 방언형임을 밝히기 있으나 실현 지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양지’가 한자어 ‘樣子’에서 유래한 어휘이며 《표준국어대사전》과 함께 사용 지역으로 ‘제주’를 밝히고 있다.

한편 최학근의 《한국방언사전》에서는 ‘낮’항과 ‘얼굴’항에서 이 어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김이협이 《평북방언사전》에서는 “얼굴의 모습, 얼굴의 생김새, 용모” 등 그 구체적인 의미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방언사전》(최학근);
  - ① 낮; 양지[방] 함남(정평) 제주(전지역)
  - ② 얼굴; 양지[방] 함남(함흥 정평 고원 함주 오로) 평남(평양 강서 성천 덕천 양덕개천)
- 《평북방언사전》(김이협); 양지[방] 얼굴의 모습. 얼굴의 생김새. 용

모. \*양지나 뵤뵤허문(뵤뵤하면) 뵤해, 마음이 고와야디(고와야지). 양짓값뵤 얼굴값. \*양짓값을 해라. (동)얼굴값

◦ 《방언사전》(김병제); 양지(함남)뵤=얼굴

제주도방언에 대한 자료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濟州島方言集》(석주명, 1947); 양지=불타사니 불뽕구니. 불타구니 (양지=불)

◦ 《濟州方言研究(자료편)》(박용후, 1960/1988); 양지→얼굴.

◦ 《濟州島方言研究(제1집 자료편)》(현평효, 1962); 낮(顏)뵤 낮[全域] 양지[全域].

◦ 《濟州語辭典》(제주도, 1995); 양지<sup>1</sup>뵤[全域]→얼굴 (고) 양즈. 양지<sup>2</sup>뵤[全域]→낮.

《濟州島方言集》(석주명)에서는 '양지=불'('불뽕구니'와 '불타구니'는 '불'의 낮춤말), 《濟州方言研究》(박용후)에서는 '양지=얼굴', 《濟州島方言研究》(현평효)에서는 '낮=양지', 그리고 《濟州語辭典》에 오면 '양지=얼굴=낮' 세 어휘를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양지'가 '얼굴'은 물론, '얼굴의 생김새'나 구체적으로 감정이 표현된 '얼굴 모습'의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얼굴≥양지'이란 수식으로 쓰고자 한다.

- ① 양지 붉은 사람 팔즈 썬다(양지 붉은 사람 팔자 세다).
- ② 양지 술 치레헌 사람 썬토맥이 웃나(양지 살 치레헌 사람 썬땡이 없다).
- ③ 양지에 푸리춤 한 여즈 팔즈 썬다(양지에 주근깨 많은 여자 팔자 세다).

①은 평상시에도 불이 밧그스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찬바람을 맞아 한때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 '얼굴'이나 '낮'이 연결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②의 '양지 술'은 '불'('뽕'의 가운데는 이루고 있는 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이나 '낮'의 한 부분이고, ③에서는 '양지' 대신에 '얼굴'로 교체되어도 무방하다.

4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낯’은 “①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다. ②남을 대할 만한 체면.”으로, ‘얼굴’은 “①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②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 ③주위에 잘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나 명예. ④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 ⑤어떤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 ⑥어떤 사물의 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표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8)</sup>

‘얼굴’의 부차적 의미 ②“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와 ④“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을 그 意味域에서 제외하는 대신 ‘양지’의 意味域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양지’의 뜻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지; ① ‘얼굴’의 방언(제주, 평안, 함남).  
 ② 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  
 ③ 어떤 심리 상태나 감정 표현이 나타난 형색.

---

8) 임홍빈의 《누앙스풀이를 겸한 우리말사전》(아카데미하우스, 1993: 124)에서는 ‘낯’과 ‘얼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가) 낯-가리키는 대상 자체는 ‘얼굴’과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낯’은 다소 비칭어(卑稱語)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뒷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 감정 표현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얼굴 가운데 이마나 귀 또는 턱 가까이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잘생긴 얼굴이나 굵고 귀한 얼굴을 ‘낯’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낯’이 다소 낮춤말인데서 오는 제약이다. 사람에 대해서만 쓰이며, 비유적 용법인 경우에도 동물에 대하여 쓰일 수 있다.
- (나) 얼굴-낮춤말이 아니므로, 임금과 같이 특별히 높은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에 대해서나 쓸 수 있다(임금의 얼굴은 ‘용안(龍顏)’이라고 한다). 머리 앞쪽이 사람과 비슷한 동물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